

‘아빠 차’ 중형 SUV 질주...5년째 차급별 1위

지난해 11월까지 준중형에 뒤지다 쌍용 토레스 선전 선두 탈환 연간 18만8293대 판매...현대차 쏘렌토·기아 EV9 출시 앞뒤

‘패밀리카’로 선호도가 높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5년째 차급별 1위를 지켰다.

인기 모델이 많은 준중형 SUV가 하반기까지 선두를 달렸으나 쌍용자동차 토레스의 신차효과에 힘입어 중형이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올해도 SUV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체가 올해 출시를 앞둔 SUV 신모델들을 ‘담금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내 완성차 5사의 연간 판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중형 SUV는 18만8293대가 팔려 준중형 SUV(18만5485대)를 근소하게 제치고 차급 1위를 차지했다. 승용차 부문 1위인 기아 쏘렌토(6만8902대)가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제네시스 GV70(2만9497대), 현대차 쏘렌토(2만8705대) 등 순이었다.

준중형 SUV는 친환경 모델 판매 호조에 힘입어 11월까지 차급 1위를 지켰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용 전기차가 선전하고 현대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모델의 반응이 좋은 차종까지 두루 인기를 끌면서 연간 판매량이 전년보다 11.5% 늘었다.

그러나 7월부터 본격 판매된 쌍용차의 중형 SUV 토레스가 12월까지 누적 2만2484대 팔리는 호실적을 낸 결과 연간 판매량으로는 중형 SUV가

결국 준중형을 앞질렀다.

이로써 중형 SUV는 2018년부터 5년 내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연간 판매 1위 차급 자리를 유지했다. 이 기간 국내 승용 판매량의 약 15%를 중형 SUV가 차지했고 작년에는 16.2%까지 늘었다.

인기 모델을 여럿 보유한 준중형 SUV도 급성장세를 보여 올해 중형 SUV와 또다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018년 6% 수준이었던 준중형 SUV의 국내 판매량 점유율은 2020년 9%대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14%로 뛰어올랐다. 작년에는 16.0%로 중형 SUV에 근소한 차이로 뒤졌다.

올해에는 작년 하반기 중형 SUV 판매량을 견인한 토레스가 1월부터 판매된다는 점에서 호실적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차는 대개 연간 풀타임 판매 첫해에 정점을 찍기 때문이다.

또 현대차가 올해 출시 예정인 중형 SUV 신형 쏘렌토가 얼마나 팔릴지도 관심거리다. 쏘렌토는 벌써 어떤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쏘렌토의 완전변경 모델은 5년 만에 5세대로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디자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를 비롯해 유튜브 등에서는 쏘렌토의 예상도를 선보이면서 기존 모델과 달리 ‘각진’ 형태의 디자인을 예상하기도 했다. 또 4세대에 하이브리드(HEV) 모델이 추가돼 판매량 증가



기아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전용전기차 모델 EV9 콘셉트.

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5세대 쏘렌토에도 HEV가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도 EV6에 이은 또 다른 전용전기차 모델 EV9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준비 중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전용전기차 모델 EV9을 오는 4월에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SUV 모델인 EV9은 준중형 SUV EV6에 이어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구성하는 두 번째 모델이다. 앞서 기아는 EV9이 1회 충전으로 최장 482km를 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준중형 SUV의 추격도 이어질 전망이다. SUV

를 선호하지만 가격과 유지비 때문에 선풍 중형을 선택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준중형에 눈을 돌리고, 전용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등 라인업이 다양해 지난해에 이어 중형 SUV와 1위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빠 차’라 불리며 패밀리카 수요가 높아 대다수 소비자가 차를 살 때 SUV 구매를 우선 고려하곤 한다”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중형 SUV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는 준중형 SUV의 대결이 올해에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 연휴 전 차 무상점검 완성차 5개사, 17~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설 연휴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돕고자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현대자동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와 함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16일 밝혔다.

무상점검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현대차는 1282개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기아는 771개 협력사(오토큐)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각사 차량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한국GM은 9개 지역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지역 서비스센터, 쌍용차는 2개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가능하다.

무상점검 대상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 정도,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퓨즈 상태 등이다. 점검 후 필요시 퓨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현장에서 무상 지원한다.

운행 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서 신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별로 긴급 출동반도 운용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현대차그룹 전기차 안전성 ★★★★★

충돌 테스트 현장 공개...아이오닉5·EV6 등 모든 차량 최고 등급

현대차그룹은 최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에서 아이오닉 5 충돌 안전 평가 현장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안전 성능을 최우선으로 수천번의 충돌 테스트와 실제 사고 분석을 통해 불가피한 사고 발생시에도 강건한 차체 구조와 최적의 안전 장치로 승객의 상태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충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IIHS(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에서 지난해 최우수 등급인 TSP+와 우수 등급인 TSP를 총 26개 차량에서 획득하며 현대차그룹 역대 최고 수준의 평가 결과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

용한 아이오닉 5, EV6, GV60 차량 모두 IIHS에서 TSP+를 받으며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모두 최고 등급인 별 다섯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현대차그룹은 안전성과 관련해 내수와 수출 구분없이 동일하게 차량을 설계하고 있으며 차량 출시 전 개발 단계별로 정면·옆셋(부분 정면), 차대차, 측면·후방시험 등 실제 사고를 재현한 다양한 충돌 모드 시험을 차량당 100여 차례 이상 진행하는 등 안전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공개된 충돌 안전 평가는 아이오닉 5의 64km/h 40% 옆셋 충돌로, IIHS 충돌 상품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64km/h 40% 옆셋

충돌은 충돌 속도 64km/h로 차량 전면의 40%를 변형시켜 충돌내 승객의 충돌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IIHS에서 64km/h 40% 옆셋 충돌은 운전자석에 남성 승객 인체 모형을 작성시켜 진행했으나 후속에는 후석에 여성 승객 인체 모형을 추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맞춰 이번 시험도 운전자석에 남성 승객 인체 모형을, 후석에 여성 승객 인체 모형을 작성시켜 진행했다.

충돌 결과 아이오닉 5는 승객 공간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인체 모형에 큰 상해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며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했다. 아이오닉 5는 지난해 IIHS 해당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 통합안전개발실장 백장인 상무는 “고객 안전 최우선 철학을 기반으로 최상의 제품 개발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대상으로 충돌 안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높은 안전 성능을 목표로 차량 개발에 최선을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힘쓴다

다보스포럼서 홍보차량 운행 G80 전동화 모델 등 58대

현대자동차그룹이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적극 힘을 보탠다.

현대차그룹은 16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다보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문구가 랩핑된 차량 58대를 운영,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모인 각국 주요 인사 및 현지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에 맞춰 다보스포럼에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18대, GV60 8대, GV70 전동화 모델 4대, 현대차 쏘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5대 등 친환경차 45대를 투입한다.

다보스포럼은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이 모여 범세계적 경제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주최 회의다. 포럼 기간 동안 국가간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대안 및 해법 등이 논의되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대차그룹이 지원한 차량은 한국 주요 기업 대표단 등의 전용 차량으로 제공돼 행사 일정 진행에 활용되고, 동시에 다보스 시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릴 것으로 보인다.

쏘렌토 PHEV는 다보스 시내 주요 행사장, 기차역, 숙소 지역 등을 순회하는 셔틀로서 포럼 참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쏘렌토 PHEV 서



제네시스 전기차들이 다보스 인근을 순회하며 2023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GV60. <현대차 제공>

플은 한국 주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겨울철 현지의 기상 변화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차량 안전을 전담하는 기술팀이 상주하도록 하는 한편 포럼에 지원된 차량에 AWD(상시 4륜 구동) 시스템 및 겨울용 타이어를 적용했다.

아울러 다보스 인근에 현대차그룹 전용의 전기차 충전 거점을 미리 확보했고, 전용 차량 지원과는 별도로 주요 행사장에 아이오닉 5를 배치해 V2L(Vehicle To Load)을 활용한 긴급 차량 충전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에 열리는 ‘한

국의 밤’ 행사장 입구에 부산세계박람회 로고가 적용된 투명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Genesis X)’를 전시할 계획이다.

‘제네시스 엑스’는 지속가능한 럭셔리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전동화 기반의 콘셉트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무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카렌스, 인도 ‘올해의 차’ 선정

EV6 ‘그린카’ 선정 등 2관왕 인도 진출 3년5개월 만의 성과

기아가 인도 전량형 모델 카렌스(사진)로 인도 진출 후 처음 정상에 올랐다.

기아는 16일 카렌스가 인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3 인도 올해의 차’(Indian Car of the Year 2023)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용 전기차 EV6도 그린카(Green Car) 부문에 선정되며 인도 올해의 차 사상 최초로 같은 해에 3개 부문 중 2관왕을 달성한 브랜드가 됐다.

이번 수상은 기아가 2019년 8월 셀토스를 출시하며 인도에 본격 진출한지 약 3년 5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 의미를 더한다.

인도 올해의 차는 인도에서 자동차 부문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로 구성된 인도 올해의 차 평가단은 매년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가격, 연비, 디자인, 기술적 혁신, 안전, 주행성능, 실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기아 카렌스가 마힌드라 스킵피오 N(Scorpio N), 마루티 그랜드 비타라(Grand Vitara)를 제치며 인도 올해의 차를 차지했고 기아 EV6는 타타 티아고(Tiago) EV, 마루티 그랜드 비타라 하이브리드를 꺾으며 그린카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EV6는 ▲2023 북미 올해의 차 ▲2022 유럽 올해의 차 ▲2022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2 왓 카 어워드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



의 차 프리미엄 부문 1위 ▲2022 레드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 ▲2022 iF 디자인 어워드 제품 부문 ▲2021 탐가이 선정 올해의 크로스오버 ▲2021 굿디자인 어워드 운송 디자인 부문 등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자동차 상들을 휩쓸게 됐다.

기아 관계자는 “2023 인도 올해의 차에서 두 개의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의 기술력과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게 앞으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25만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중 카렌스는 6만200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